

KMI 동향분석

VOL.163

2019 DECEMBER

발간년월 2019년 12월(통권 제163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감 수 최재선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관리실 홈페이지 www.kmi.re.kr

해양수산 창업 실태 및 시사점

- 대표 창업자는 직장경력 10년 이상의 50대 남성
- 기술기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플랫폼 구축 필요

최석우 경제산업·통계분석실 전문연구원
(schoi@kmi.re.kr/051-797-4777)

김정우 경제산업·통계분석실 전문연구원
(jwkim@kmi.re.kr/051-797-4775)

김태한 경제산업·통계분석실 연구원
(thkim@kmi.re.kr/051-797-4783)

박광서 혁신전략실장
(kspark@kmi.re.kr/051-797-4722)

현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동력을 창업 활성화에서 찾고 있다.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하여 혁신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은 개인적으로는 부(富)의 축적 수단으로, 사회적으로는 고용 창출과 세수 증가 등에 기여할 수 있다. 해양수산 분야도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벤처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실태 파악과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창업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지 7년 미만’인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9월 1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창업사업체의 일반 현황과 성장 주기별(준비단계→실행단계→성장단계)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해양수산업 특수분류체계에 따른 9개 해양수산업의 총 890개 사업체를 조사하였으며, 신뢰수준은 95%±3.28%이다.

2017년 기준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사업체 수는 8만 1,068개로 추정되었다. 이는 전체 해양수산 사업체 17만 2,003개의 47.1%에 해당한다. 산업별로는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이 53.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수산물 유통업(25.1%), 수산물 생산업(8.5%),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4.5%), 해운항만업(2.9%) 순으로 나타났다. 업력 기준으로는 1년 미만의 창업사업체가 20.4%, 1~2년이 21.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업력이 오래될수록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해양수산 창업사업체의 창업자는 주로 50대(38.2%), 남성(75.7%), 대졸(52.4%), 공학계열 전공(2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이전 경력은 대부분 취업상태(60.2%)였으며, 국내 중소기업(70.7%)에서 10년 이상(73.1%)을 재직하였다. 첫 창업이 83.0%였으며, 평균 16.1개월의 준비기간이 소요되었다. 창업자의 22.2%만이 창업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형태는 대부분 소상공인(71.0%)으로 수산식품분야와 수산물 가공업 등의 비중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수산 분야 창업 시 소요자금은 '1억 원 이상'이 66.9%로 가장 많았고, 평균 소요자금은 4억 2,070만원이었다. 자금 조달 방법은 자기자금(68.6%), 은행/비은행 대출(22.1%), 정부융자/보증(3.5%), 개인 간 차용(3.3%) 순으로 조사되었다. 창업 아이디어 및 아이템 원천은 '본인만의 아이디어'가 77.2%를 차지한 가운데, '기술이전'은 3.6%로 전산업(9.4%) 대비 38.3% 수준이었다. 기술이전의 경우 국내(96.9%) 중소기업(50.0%)으로부터 기술매각 또는 양도(68.8%)를 통해 독립창업(59.4%)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업장의 입지는 일반상업지역(66.2%)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소비자 접근성(45.6%)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 창업사업체의 72%는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익 발생시점은 창업 후 '1~2년 미만'이 41.2%로 가장 높았다. 인력 구성에 있어서 전체 종사자수는 평균 6.0명으로 나타났고, 이 중 평균적으로 정규직이 5.3명(비정규직 0.7명), 남성이 4.3명(여성 1.7명), 50대가 1.8명(40대 1.8명, 30대 1.2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구개발 부서 또는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체가 96.1%에 달해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기업 협력·제휴 여부도 '없음'이 98.5%를 차지했다.

한편, 정부 또는 지자체의 창업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업체의 비중은 24.9%로 전산업(13.1%)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주로 '정책자금'(64%)과 '창업교육'(59.5%)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만족도 역시 이들 사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미 신청 사유로는 '알지 못해서'(27.5%)가 가장 높았고, 창업에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창업 성공까지 경제적 생계 유지지원'(27.3%)과 '초기단계 금융지원'(17.9%) 등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해양수산 분야 창업은 직장경력 10년 이상의 50대 남성 위주이며, 청년과 여성의 창업이 미흡한 편이다. 또한 창업 준비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창업 아이디어 또는 아이템을 기술이전으로 확보하는 사례가 적다. 연구개발 부서 또는 인력을 보유한 사업체가 매우 부족하고, 정책자금과 창업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들 창업지원사업 시행에 대해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기술 인력의 벤처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이 기술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전통 해양수산업의 스마트화, 해양금융, 해양엔지니어링 등 서비스 분야를 육성하여 청년과 여성 창업을 유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해양수산 전용펀드를 통한 창업 성장 주기별 맞춤형 자금 지원, 창업 지원정책 홍보 강화 등이 주요 정책수단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창업 실태 조사

■ 해양수산 창업사업체의 성장 주기별 적합한 지원과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창업 현황과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수집의 필요성 증가

-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원정책의 확대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창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창업자 및 창업사업체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체계적인 창업 육성 정책 수립 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해양수산 분야도 해양수산 창업사업체의 성장 주기별로 적합한 지원과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신뢰성 있고, 전문적인 기초 통계자료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해양수산분야 창업사업체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창업·투자 활성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9 해양수산 창업 실태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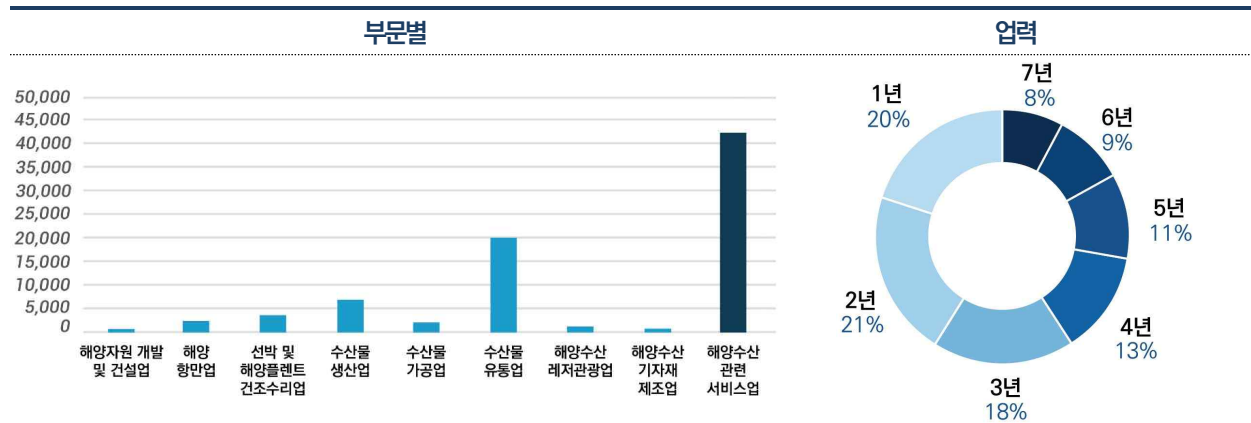
- (조사대상) 해양수산업 9개 분야*의 사업체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체임
- *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 해운항만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수산물 생산업,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유통업, 해양수산 레저관광업,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 (표본크기 및 오차) 890개 사업체,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3.28\%p$
- (조사기간) 2019년 9월 13일~10월 11일
- (조사방법) 전문조사기관(알앤알컨설팅(주))에 의한 개별면접조사
- (조사내용) 창업사업체의 일반 현황과 성장 주기별(준비단계→실행단계→성장단계) 문항 및 창업 지원정책 관련 문항

■ 2017년 기준 해양수산 창업사업체 수는 81,068개로 전체 해양수산 사업체의 47.1%

- 2017년 기준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업력 7년 미만의 해양수산 창업사업체 수는 81,068개로, 전체 해양수산 사업체 수 17만 2,003개의 47.1%에 해당함
- 해양수산 창업사업체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이 53.7%로 가장 높은 가운데, 수산물 유통업(25.1%), 수산물 생산업(8.5%),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4.5%), 해운항만업(2.9%) 순임

- 특히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총 사업체 5만 6,425개 중 창업사업체가 4만 3,569개 (77.2%)로 창업사업체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수산물 생산업은 총 사업체 4만 7,049개 중 창업사업체가 6,911개(14.7%)로 비중이 낮은 편임
- 업력 기준으로 업력 1년의 창업사업체가 20.4%, 2년이 21.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후로는 업력이 오래될수록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1. 해양수산 창업사업체 일반현황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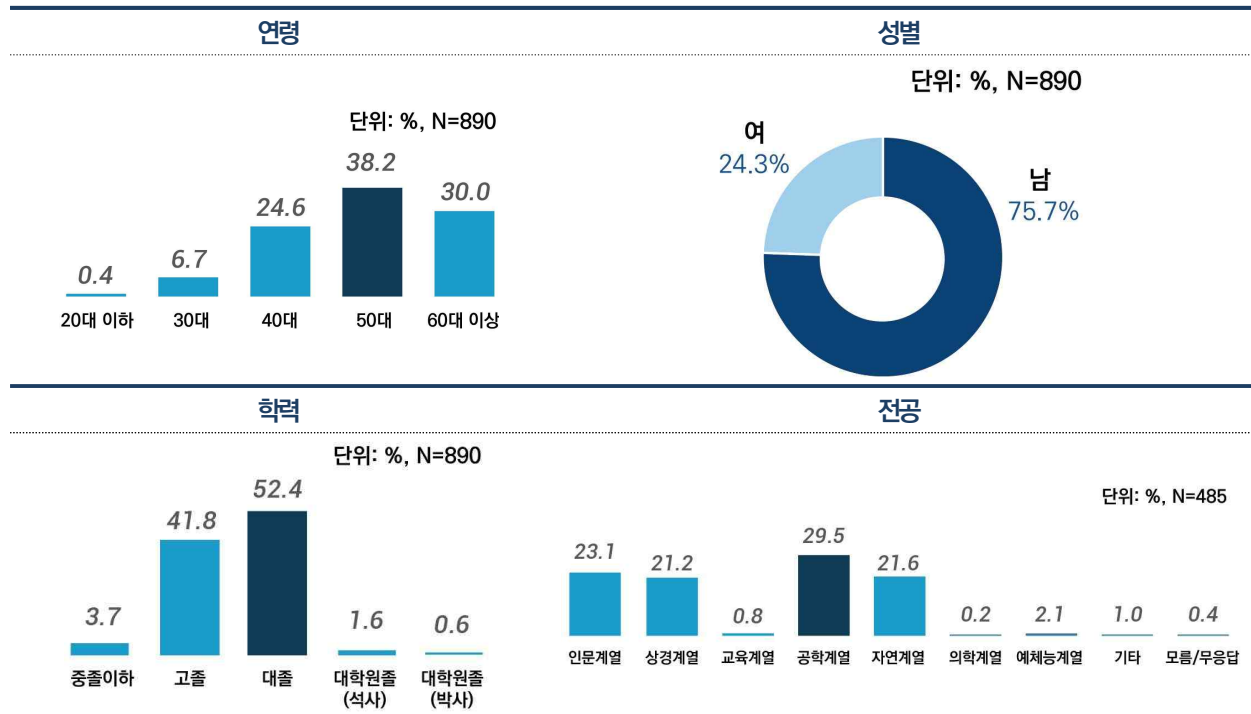
창업 준비 단계

■ 해양수산 창업사업체의 대표적인 창업자는 50대(38.2%), 남성(75.7%), 대졸(52.4%), 공학계열 전공(29.5%)

- 창업자 연령은 '50대'(38.2%)에 이어 '60대 이상'(30.0%), '40대'(24.6%), '30대' (6.7%), '20대 이하'(0.4%)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75.7%) 비율이 '여성'(24.3%) 보다 매우 높음
- 창업자 학력은 '대졸'(52.4%)과 '고졸'(41.8%)이 대부분이며, '대학원졸(석사)'와 '대학원졸(박사)'의 비율은 각각 1.6%와 0.6%로 낮게 나타남
- 대졸 창업자의 전공은 '공학계열(29.5%)', '인문계열(23.1%)', '자연계열(21.6%)', '상경계열(21.2%)'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으며, 고졸 창업자는 '실업계'(64.0%)의 비율이 높음
- 전산업과 비교 시¹⁾, 해양수산업 창업자는 '50대 이상'(68.2%)과 '남성'(75.7%)이 전산업(각각 51.4%, 61.2%) 대비 높은 반면, '석사 이상의 학력'(2.2%)은 전산업(5.0%) 대비 낮은 편임

1)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 대상 창업기업의 현황 및 특성 파악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 고에서 해양수산업과 전산업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는 「2018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의 결과임

그림 2. 해양수산 창업자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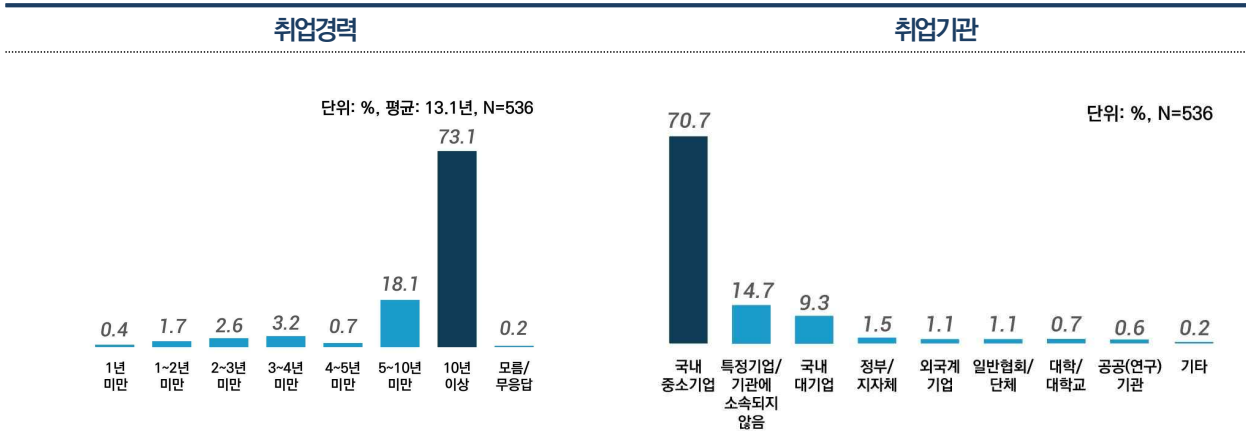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 창업하기 전에는 취업상태(60.2%)였으며, 대부분 국내 중소기업(70.7%)에서 일반사무직 (28.4%)으로 10년 이상(73.1%) 근무

- 해양수산 창업자는 창업 직전 '취업 상태'(60.2%)였으며, 평균 근무 경력은 13.1년으로 조사됨
- '중소기업'(70.7%) 근무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특정기관에 소속되지 않음'(14.7%), '국내 대기업'(9.3%), '정부/지자체'(1.5%), '외국계 기업'(1.1%) 순임
- 직종별로는 '일반사무직'(28.4%)과 '기능생산직'(27.4%)이 많았으며, 그 외 '영업판매직'(17.4%), '경영관리직'(12.3%), '단순노무직'(9.9%), '연구기술직'(4.7%) 순으로 나타남

그림 3. 해양수산 창업자 취업경력 및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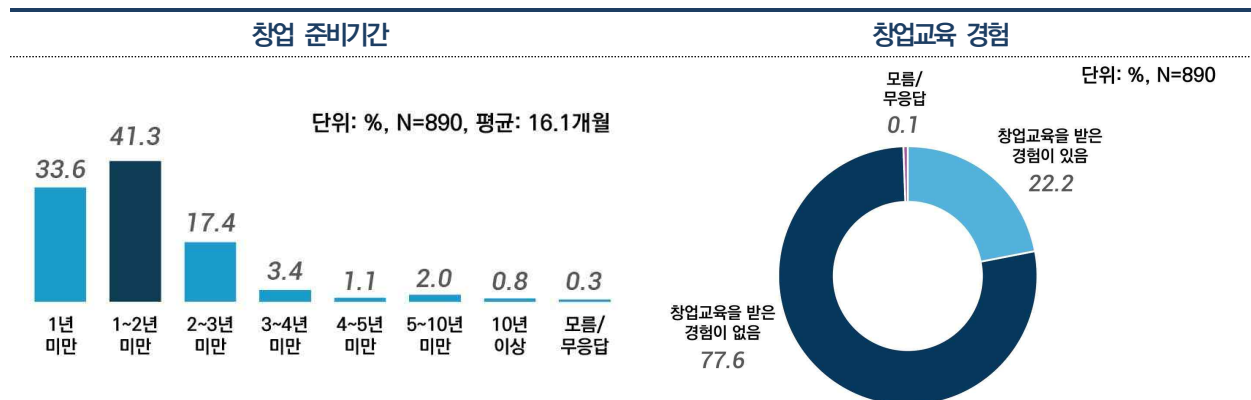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 대부분 최초 창업(83.0%)으로 평균 16.1개월의 준비기간이 소요됐으며, 창업자의 22.2% 만이 창업 관련 교육을 경험

- 창업자의 대부분은 '최초 창업'(83.0%)이었으며, '재창업'(16.7%)인 경우 재창업 횟수는 '2회'(57.0%)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회'(30.2%), '3회'(9.4%), '4회 이상'(3.4%) 순임
- 창업 준비기간은 '1~2년 미만'이 41.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1년 미만'(33.6%), '2~3년 미만'(17.4%), '3~4년 미만'(3.4%) 순임
- '창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음'은 22.2%로, 창업자의 77.6%는 창업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산업과 비교 시, 해양수산 창업의 준비기간(16.1개월)과 창업교육 경험(22.2%)은 전산업(10.4개월, 17.9%)보다 높은 편으로, 이는 해양수산업 창업자 연령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음

그림 4. 해양수산 창업의 준비기간 및 창업교육 경험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 주요 창업형태²⁾는 소상공인(71.0%)으로 수산식품분야와 수산물 가공업 등이 큰 비중을 차지

- 창업형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 ‘소상공인’(71.0%)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1인 창조기업’(23.9%), ‘벤처기업’(2.1%), ‘프랜차이즈’(1.8%), ‘소호(SOHO)’(0.4%) 순으로 나타남
- 부문별로는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과 수산물 가공업은 소상공인 비중이 각각 83.3%, 82.4%로 매우 높았고, 반면 해운항만업과 해양수산레저관광업은 상대적으로 ‘1인 창조기업’의 비중이 각각 31.8%, 31.7%로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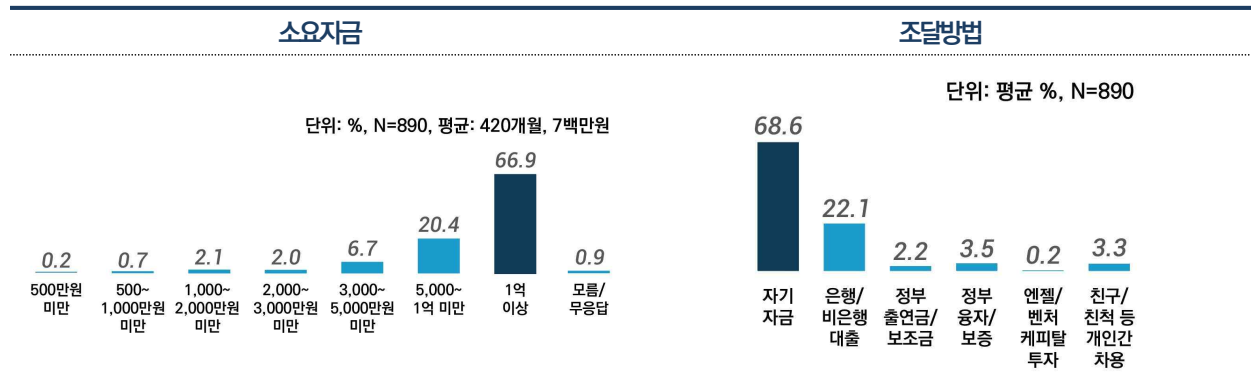
창업 실행 단계

■ 해양수산 분야 창업 시 소요자금은 ‘1억 원 이상’(66.9%)이며, 조달방법은 대부분 ‘자기자금’(68.6%)을 활용

- 창업 시 소요자금은 ‘1억 원 이상’(66.9%)이 가장 많으며, 이어서 ‘5,000~1억 원 미만’(20.4%), ‘3,000~5,000만 원 미만’(6.7%), ‘1,000~2,000만 원 미만’(2.1%) 순임
- 평균 창업 소요자금은 약 4억 2,070만 원으로 추정됨
- 창업자금 조달방법은 ‘자기자금’(68.6%)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은행/비은행 대출’(22.1%), ‘정부 융자/보증’(3.5%), ‘개인간 차용’(3.3%), ‘정부 출연금/보조금’(2.2%) 순임
- 전산업과 비교 시, 창업소요자금은 해양수산업이 전산업(3억 2,900만 원) 대비 높은 반면, 자기 자금 조달비중은 전산업(92.5%) 대비 낮은 편임

2) 벤처기업은 첨단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창조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창업 형태; 소호(SOHO)는 집이나 작은 사무실에서 정보나 지식, 그리고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작하는 사업형태; 1인 창조기업은 자신의 경험, 기술 등을 통해 보다 창조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집약적 기회형 창업; 소상공인은 외식업, 소매업, 유통업 등 규모가 작은 점포형태의 창업; 프랜차이즈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본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일한 이미지를 갖고 사업을 하는 형태

그림 5. 해양수산 창업 소요자금 및 조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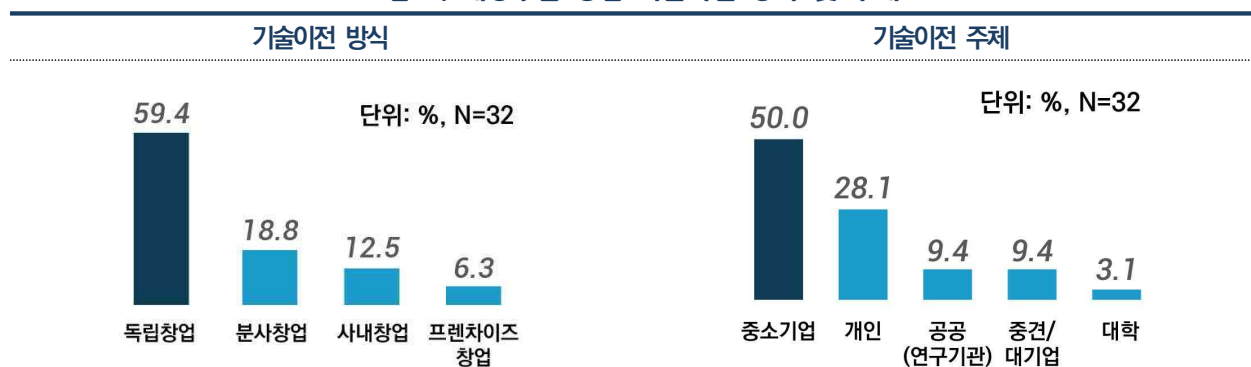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 창업 아이디어 및 아이템 원천은 ‘본인만의 아이디어’가 77.2%이며, ‘기술이전’은 단 3.6%에 불과

- 창업 아이디어 및 아이템 원천에는 ‘본인만의 아이디어’(77.2%)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아이디어 보유자와 함께 참여’(16.0%), ‘기술이전’(3.6%), ‘아이디어 교류, 협업을 통한 창업아이템 발굴’(2.9%) 순임
- 기술이전의 경우 대부분 ‘국내’(96.9%), ‘중소기업’(50.0%)으로부터 ‘독립창업’(59.4%)한 형태로, ‘기술매각 또는 기술양도’(68.8%) 방식인 것으로 조사됨
- 전산업과 비교 시, 기술이전 비중이 전산업(9.4%) 대비 매우 낮은 편임

그림 6. 해양수산 창업 기술이전 방식 및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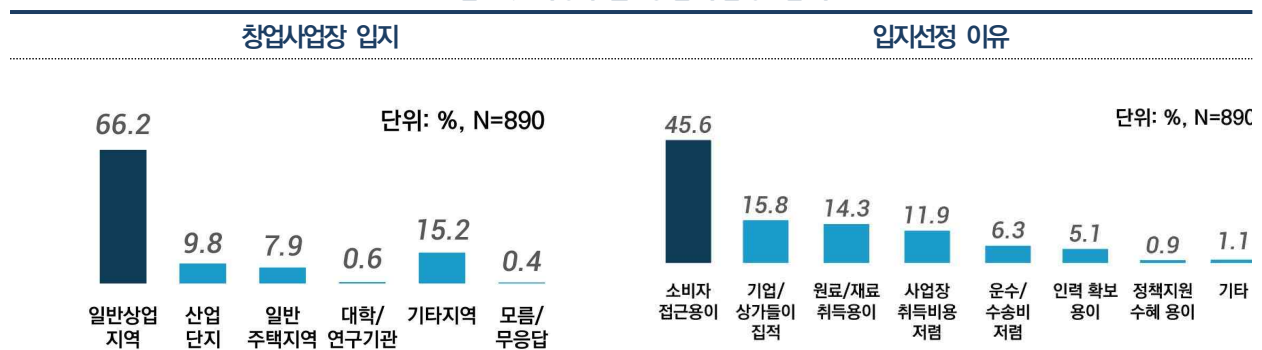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 창업사업장은 직접 이익이 높은 일반상업지역(66.2%)에 집중되었고, 입지선정 이유는 소비자 접근 용이성(45.6%)

- 창업사업장의 입지는 ‘일반상업지역’(66.2%)이 가장 높고, ‘산업단지’(9.8%), ‘일반주택지역’(7.9%), ‘대학/연구기관’(0.6%) 순임
- 창업 입지 선정 기준으로는 ‘소비자 접근 용이’(45.6%)가 우선시되며, 다음으로 ‘기업/상가 집적’(15.8%), ‘원료/재료 취득용이’(14.3%), ‘사업장 취득비용 저렴’(11.9%) 순으로 나타남
- 해양수산업의 주요 품목 특성상 일반상업지역 비중이 전산업(47.5%) 대비 높은 편임

그림 7. 해양수산 창업사업장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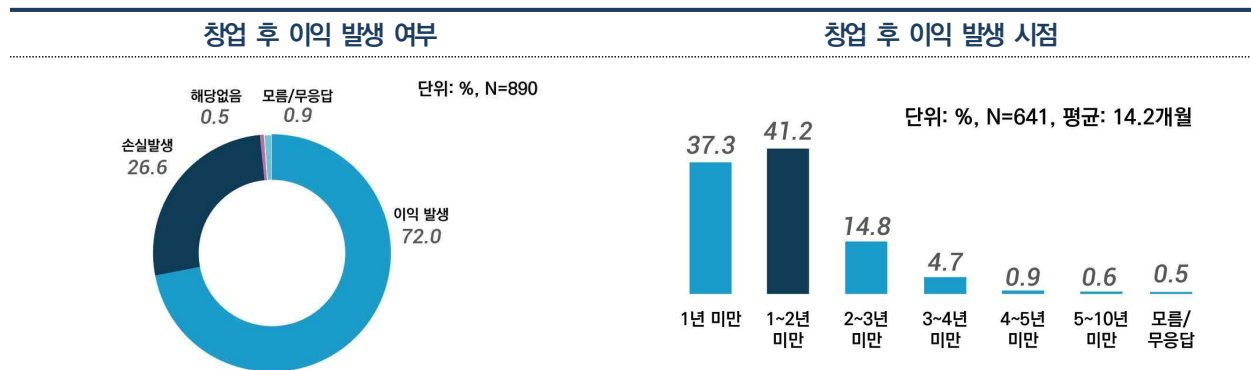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창업 성장 단계

■ 해양수산 창업사업체의 72%는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창업 후 이익 발생 시점은 평균 14.2개월

- 창업사업체의 이익 발생 여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이익 발생’(72.0%)이 ‘손실 발생’(26.6%) 보다 높게 나타남
- 이익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후 이익 발생 시점은 ‘1~2년 미만’(41.2%)이 가장 높고, 이어서 ‘1년 미만’(37.3%), ‘2~3년 미만’(14.8%) 순이며, 평균은 14.2개월임

그림 8. 해양수산 창업사업체 이익 발생 여부 및 시점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 해양수산 창업사업체의 전체 종사자수는 평균 6.0명이며, 그 중 정규직이 5.3명을 차지

- 종사자 지위별로는 '정규직'이 5.3명, 성별로는 '남성'이 4.2명으로 다수를 차지함
-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0.4명, '30대' 1.2명, '40대' 1.8명, '50대' 1.8명, '60대 이상' 0.9명임

그림 9. 해양수산 창업사업체 인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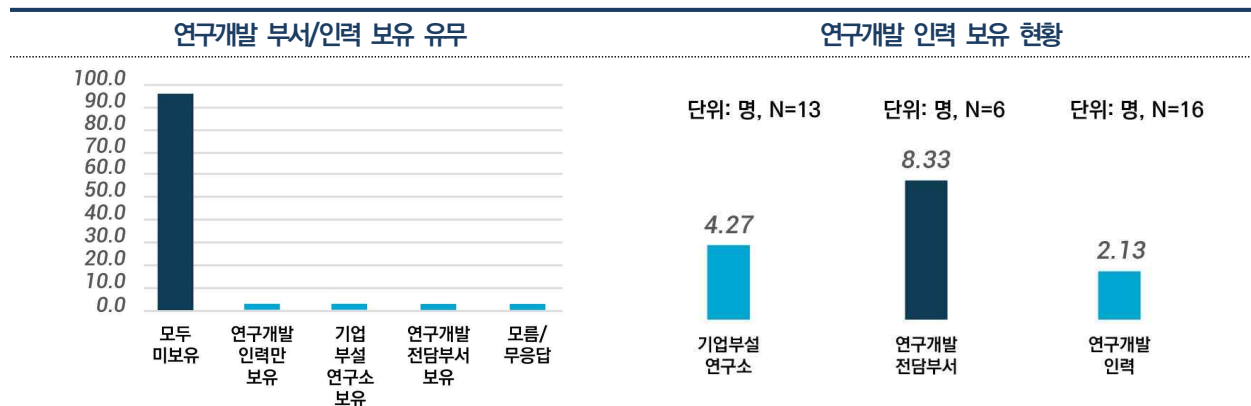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 연구개발 부서 또는 인력을 미보유한 사업체가 96.1%에 달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투자가 부족

- 연구개발 인력만 보유한 사업체는 1.8%,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사업체는 0.7%,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사업체는 1.2%에 그치고 있으며, 모두 미보유한 사업체가 96.1%에 달함
- 한편 연구개발 인력만 보유한 사업체(16개)는 평균 2.13명의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사업체(6개)는 평균 8.33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사업체(13개)는 평균 4.27명임

그림 10. 해양수산 창업사업체 연구개발 부서/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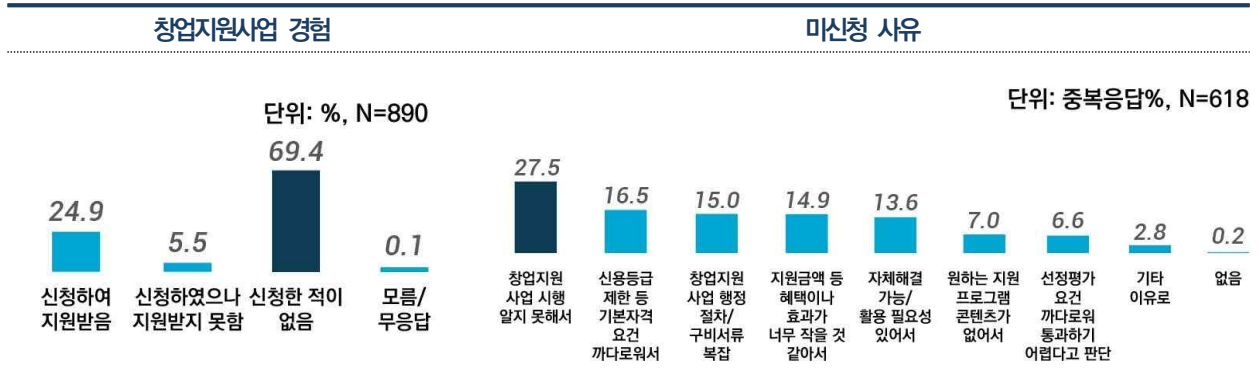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창업 지원 정책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업체의 비중은 24.9%로 전산업(13.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창업지원사업 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신청한 적이 없음’(69.4%)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신청하여 지원받음’(24.9%), ‘신청하였으나 지원받지 못함’(5.5%) 순임
- 부문별로는 수산물 가공업과 수산물 생산업이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지원받은 비율이 높았고, 반면 해양수산 레저관광업,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업,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은 신청하였으나 받지 못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창업지원사업에 미신청한 사유로는 ‘알지 못해서’(27.5%)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기본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서’(16.5%), ‘행정 절차/구비서류가 복잡’(15.0%), ‘혜택이나 효과가 작을 것 같아서’(14.9%) 순임
- 한편 전산업과 비교 시,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업체의 비중이 전산업(13.1%) 대비 높고, 신청한 경험이 없는 비율은 전산업(82.5%) 대비 낮은 편임

그림 11. 해양수산 창업사업체의 창업지원사업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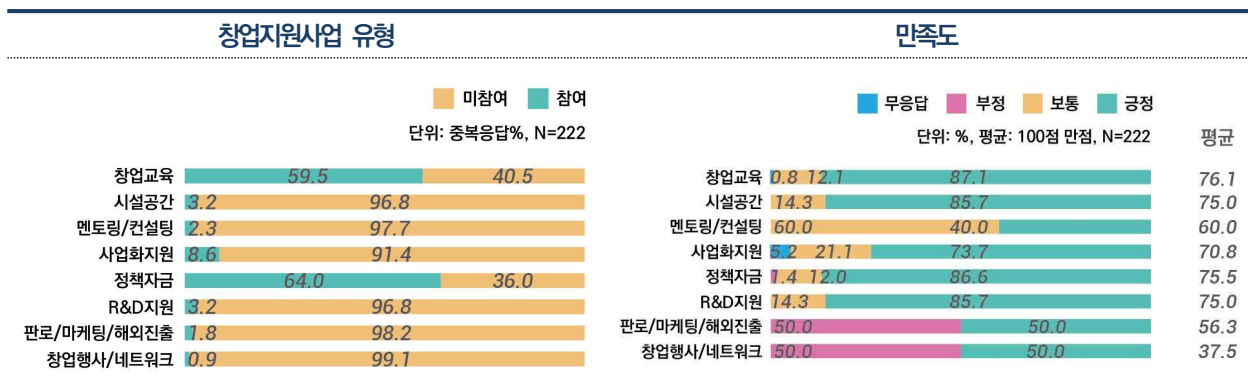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주로 ‘정책자금’(64%)과 ‘창업교육’(59.5%)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높은 편

-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체(222개)를 대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의 유형을 물어본 결과, ‘정책자금’(64%), ‘창업교육’(59.5%), ‘사업화지원’(8.6%), ‘시설공간’(3.2%), ‘R&D지원’(3.2%) 순으로 나타남
- 사업별 만족도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창업교육’(76.1점), ‘정책자금’(75.5점), ‘시설공간’(75.0점), ‘R&D지원’(75.0점), ‘사업화지원’(70.8점) 순임

그림 12. 해양수산 창업사업체의 창업지원사업 유형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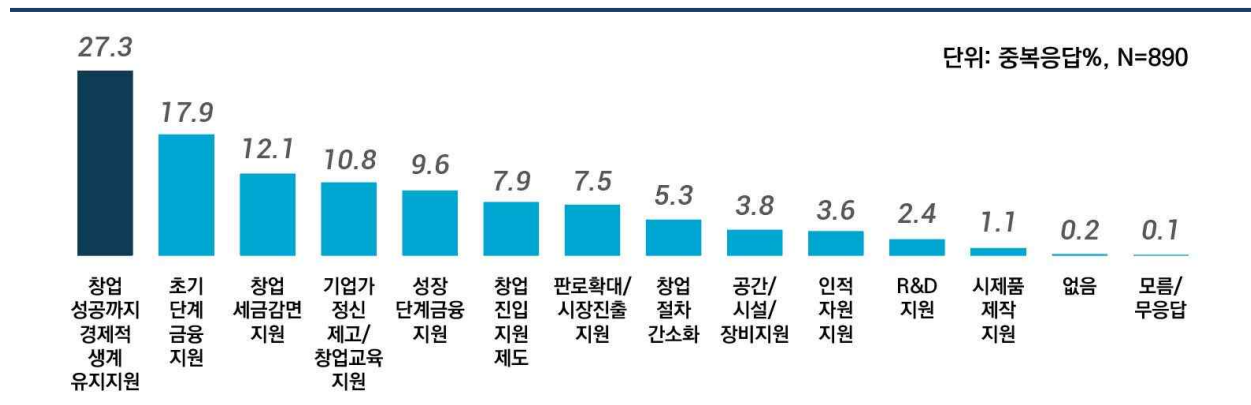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 창업에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창업 성공까지 경제적 생계 유지지원’(27.3%)과 ‘초기단계 금융지원’(17.9%) 등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요구

- 창업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물어본 결과, ‘창업 성공까지 경제적 생계 유지지원’(27.3%)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초기단계 금융지원’(17.9%), ‘창업세금 감면지원’(12.1%), ‘기업가정신 제고/창업교육 지원’(10.8%) 순임
- 한편, ‘R&D사업’(2.4%)과 ‘시제품 제작지원’(1.1%)은 상대적으로 요구 정도가 낮았음

그림 13. 창업에 필요한 지원정책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향후 정책 시사점

■ 해양수산 분야는 50대 이상의 남성이 주축을 이룬 소규모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으로 청년과 여성의 기술 기반의 혁신창업이 미흡

- 전산업 대비 해양수산 분야 창업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직장 경력 10년 이상의 50대 남성이 소상공인 형태로 창업한 소규모 생계형이 대부분임
- 둘째, 전산업 창업자의 30대 이하 청년 비중(15.7%)과 여성의 비중(38.8%)에 비해 해양수산업은 30대 이하 비중(7.1%)과 여성 비중(24.3%)이 매우 미흡함
- 셋째, 창업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6.1개월로 전산업의 10.4개월 보다 긴 편임
- 넷째, 창업 아이디어 또는 아이템 원천으로 기술이전이 3.6%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기술이전 주체가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학인 경우는 12.5%에 불과함
-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부서 또는 인력을 모두 미보유한 사업체가 96.1%에 달해 지속적인 혁신활동에 제약이 있음

■ 로테르담의 PortXL 등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해양수산에 특화된 신기술 창업에 대해 초기투자과 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혁신플랫폼 구축 필요

- 로테르담항의 해양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PortXL은 전세계에 흩어져있는 해양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것에서부터 비즈니스 플래닝, 자금조달, 마케팅, 비즈니스 설립에 이르기까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함
- 우리나라도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혁신플랫폼 구축을 통해 연구기술 인력의 벤처창업을 유도하고 창업사업체의 성장 주기별 맞춤형 자금 지원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는 첫째, 해양수산 관련 연구소기업 및 대학기업 등 연구기술 인력의 창업 초기사업비 지원, 법인세 매칭 지원, 창업휴직(학)제도 및 창업학점제 도입 등의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함
- 둘째, 청년과 여성이 자신의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킬 수 있도록 청년 및 여성 대상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법률·회계·노무·마케팅·투자유치 등 창업 관련 컨설팅을 강화해야 함
- 셋째, 창업 준비 기간을 줄이고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과 창업 이후 경제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에 해양수산 분야 전용펀드를 통한 창업 성장 주기별 맞춤형 자금 지원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기업에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온라인 기술거래 활성화, 미활용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시행 등이 강화되어야 함